



미원주민선교주일

알고
계셨습니까?



미원주민선교주일은 연합감리교인들이 미원주민들의 은사와 우리 사회를 위한 그들의 기여를 생각하게 합니다. 교단 내에 20,000명 이상의 미원주민 교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, 이 특별 선교 주일은 미원주민 연합감리교 지도자들이 인정받도록 돕습니다. 1988년에 공식 인정되었고, 1989년 이래로 부활 후 셋째 주일에 지켜졌습니다. 각 연회의 미원주민 사역과 미원주민 농촌 및 도시 지역, 보호구역 내 사역, 또한 총회 세계선교부 관련 지역사회 사역을 개발/강화하기 위해 미원주민선교주일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. 특별 선교 헌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또한 총회 고등교육사역부에 의해 배분되어 연합감리교회 산하 신학교에 재학 중인 미원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 이 기금은 총회 고등교육사역부가 관장합니다.

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이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?

53 개의 연합감리교회 연회에 미원주민선교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

미원주민선교주일에 모금된 모든 헌금의 25%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

연합감리교회에 미원주민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?

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의 50%가 각 지역 연회에 남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?



열린 가슴, 열린 마음, 열린 문.
한인연합감리교회®

헌금하기 | 더 알아보기